

# “한류 이제는 전통문화가 이어가야 할 때”

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전략연구포럼서

“세 정부는 불교 등 한국전통문화의 각 분야에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합니다. 전통문화장조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한류 3.0에 대비해 전통문화 콘텐츠 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주관하는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성장 전략 연구포럼’이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김창규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상미 한국외대 한국학과 교수, 윤종강 국악평론가, 이상현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등한지, 한식, 한복, 한옥 등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원태 문광연 연구위원(사진)은 지난 20여 년간 전통문화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는 ‘전통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전통문화진흥법 입법 및 위원회 창설을 주장했다.

이원태 연구위원은 “한류는 이제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3.0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도 한류 3.0을 모토로 전통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통문화계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전통예술과 건축, 디자인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문화상품과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산업 전



반에 있어 전통문화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전통문화 활용 증대를 위해 전통문화 진흥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법안에는 △전통문화 창조위원회 설치 △전통문화 창조 기본계획 수립 △전통문화의 날 지정 등이 담겨 있으며 TF팀 구성을 통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과 무형문화유산법안, 공예산업 진흥법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문화의 다양성 및 사회 이슈의 복잡화로 인해 정부부처 만으로는 그 흐름에 대처하기 힘들다”며 “종교와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불교와 같은 한국전통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 하는 분야에서 전문과 의견 수렴의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통문화장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학술 · 문화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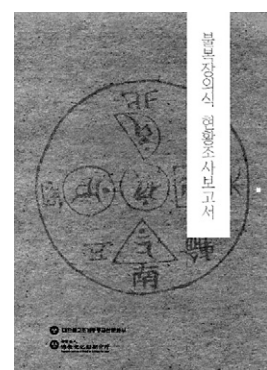
### 조계종, 불복장 의식 현황조사서 발간

사리를 비롯한 다양한 성보를 불상의 복장 내에 넣는 의식인 ‘불복장 의식’ 현황조사 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됐다.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불복장 의식과 관련한 기초자료들을 모아 <불복장 의식 현황조사 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2012년 서울 청량사에서 진행된 불복장 의식의 전 과정이 모두 기록돼 있으며, 도성 스님 등 다섯명의 전승자 스님들에 대한 인터뷰도 함께 담겨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복장 의식은 단순한 물체인 불상을 예배와 공경의 대상인 성보로 올리는 불교전통의 의식”이라며



“향후 학술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복장 의식은 그동안 기초자료가 희귀해 스님들 사이에서 <조상경>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전승돼왔다.

문화부가 기획하고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를 바탕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불복장 의식의 실행과 전승 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사학, ‘문사철’ 제31·32호 발간

한국불교사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제31·3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보은 의통의 생애와 사상’, 구성희 숙명여대 연구교수의 ‘남자 황제보다 뛰어난 당나라 여황제 측천무후의 역사적 공적’, 권선향 동국대 박사의 ‘송대 이학의 본체론과 불교와의 관계’, 동국대 강이정담교

수 자현 스님의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통해 본 한국문화의 재발견’, 권오민 경성대 교수의 ‘다양성과 유연성의 불교’ 등의 논문이 실렸다. 또 △강상연의 미술사여행(14): 존제의 근원 속으로 - 고려불화 ‘아미타여래도 △일본 최초의 불교설화집 - ‘일본영이기’ 등의 글도 눈길을 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사회문화학, ‘도시불교와 건축’ 세미나

동국대 불교사회문화학연구원(원장 유진)은 2월 1일 오후 1시 경주 동국대 100주년기념관 5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경주·시안·교토 불교세미나를 개최한다.

‘도시불교와 건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불교세미나에선 불교사회문화학연구원장 유진 스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3분야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의 ‘경주 도성과 불교 건축’, 하코자키 카즈히사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의 ‘7~8세기 일본의 도시사원’ 지에용치양 중국 섬서사범대학 교수의 ‘당대 수도 장안성의 불교사원 건축’ 등 논문이 발표된다. (054)770-2597

노덕현 기자

### 원각불교사상학, ‘천태학연구’ 15집 발간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최근 <천태학연구> 제15집을 펴냈다.

‘대각국가 금강가사의 특징과 천태종 가사 전승에 관한 연구’ 새세운 스님의 ‘천태종 안거 100회, 수행전통과 나아가 길·회고와 전방’ △황순일 동국대 교수의 ‘안거제도의 기원과 의미’ △차차석 박사의 ‘안거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모색’ △고우의 금강대 교수의 ‘천태종 안거제도의 특성과 수행-재가 신도 안거 수행을 중심으로’ 등 12편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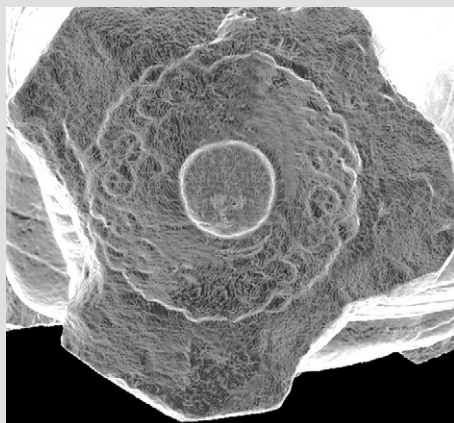
이번 <천태학연구>에는 △백도수 능인선원연구소 연구위원의 ‘초기교단의 계율과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 △신성현 동국대 교수의 ‘대승불교시대 보살의 계율’ △권기중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원장의 ‘한국불교에 있어서 계율의 문제’ △창원 원흥사 주지 유정 스님의 ‘천태종 가사보존위원회 창립에 즈음하여’ △이봉춘 동국대 교수의 ‘가사의 인도적 원형과 중국적 변용’ △김경숙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연구위원의 ‘한국가사의 특징’ △강선서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선시대 가사의 구성체계와 변천-조선 중기 이후를 중심으로’ △보광 스님의

‘대각국가 금강가사의 특징과 천태종 가사 전승에 관한 연구’ 새세운 스님의 ‘천태종 안거 100회, 수행전통과 나아가 길·회고와 전방’ △황순일 동국대 교수의 ‘안거제도의 기원과 의미’ △차차석 박사의 ‘안거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모색’ △고우의 금강대 교수의 ‘천태종 안거제도의 특성과 수행-재가 신도 안거 수행을 중심으로’ 등 12편이 실렸다.

또 공모논문으로 △권동우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삼국유사’ 불교연기설화의 신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황상준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의 ‘현대 재가불자의 관음신앙 유형에 대한 고찰-삼국유사의 관음설화를 토대로’ 등이 게재됐다.

노덕현 기자

## 갓바위 부처의 ‘갓’, 동일연대 조성



갓바위 부처의 3D 정밀조사로 밝혀진 주변 석재의 원형 복원도(좌)와 갓부분 보살화 문양(우)

### 선본사 · 불교문화재연구소 3D 정밀조사서

그동안 갓 부분과 불상의 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갓바위 부처(관음석조여래좌상)의 연대 논란을 종식시키는 자료가 발견됐다.

경산 선본사(주지 덕문)와 불교문화재

연구소(소장 각립)는 1월 15일 경산 선본사 성보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관음석조여래좌상의 관(冠)에서 보살화(寶相華) 문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머리에 쓴 갓의 모양이 대학학사모와

비슷하여 입시철 합격 등에 영험한 것으로 알려진 관음석조여래좌상. 그동안 관음석조여래좌상의 갓은 자연석을 단순 가공해 후대에 올려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왔다.

경산 선본사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2년 8월부터 실시한 3D 정밀 스캔 조

사에서 나온 갓 뒷면의 보살화 문양은 관음석조여래좌상이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며 함께 조성됐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보살화 문양은 연꽃을 모체로 해 꽃잎들을 층층이 중첩시켜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을 부가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다방면에 걸쳐 사랑받았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통해 불상 주변에 석재 중 일부가 불상 오른쪽에 부착해 본 결과 불상 무릎과 대좌 부분이였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선본사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관음석조여래좌상의 가상 복원도를 제작해 보존·관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 발견이 2007년부터 경북도가 추진 중인 관음석조여래좌상의 국보 승격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3~4월 경 세미나를 통해 이번 조사 결과의 학술 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고려 팔만대장경, ‘남해 판각설’ 단서 나와

경남발전연구원, 남해 고현면 일대 시굴조사 결과 발표

고려팔만대장경의 조성지가 강화 선원사와 남해 분사라는 이설이 팽팽한 가운데 남해 판각설을 입증하는 근거가 나왔다.

남해군(군수 정현태)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원장 류창환) 주관으로 1월 11일 남해군청에서 팔만대장경 판각주정지 시굴조사 성과보고회의를 개최했다.

남해군은 2012년 11월 고려대장경 ‘중경록 27권’에 기록된 <정미세분사남해대장도감개관(丁未歲分司南海大藏都監開

版)에 기록된 ‘남해’ 지명에 대한 판각주정지를 설정하고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판각주정지는 남해군 고현면 일대 前관당성지와 前선원사지, 안타골유적과 前망덕사지 등 4개소다.

이날 조사결과 남해 고현면 일원에는 최소 3개 이상의 판각 관련 건물이 있었으며 이 건물들의 잔재에서 동일한 명문 타날판을 이용해 만든 기와가 출토돼 건물들이

상호 연관있는 건물임이 드러났다.

경남발전연구원 전문위원인 최연주 동의대 교수는 “남해 여러 곳에서 대장경 판각의 흔적이 보인다”며 “시굴조사에서 드러난 건물들이 판각장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불교사지학자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고려대장경 1000년 특별법회’에서 팔만대장경 제작시기가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조성했다는 기존 학설과 달리 1237년부터 1248년까지 12년 동안 판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팔만대장경 판각을 강화 선원사 대장도감과 남해의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했지만 두 곳은 동일한 장소로 그 곳이 바로 남해라는 주

장도 맞벌였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불교계 언론에서 제기된 이후 남해가 대장경 판각지라는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향토사학자들과 수차례 토론 후 시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남해 일대 석역화로 동북아역사문화벨트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보고회에는 남해 화방사 주지 종호 스님과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 등이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종호 스님은 “조사에서 명문기와, 건물지 발견으로 팔만대장경 조성위치를 확인하는 새 단서를 찾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월 개강. 매주 (일,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암판 사진 3매
- ※ 원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출강 및 통신

##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⑤ 법사복수 후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대법사과정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불교석학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교육원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